

기호일보

HOME > 지역

가평소방서 의용소방대, 봄철 화재 안전 지킴이로 나서

✎ 엄건섭 기자 | ⓒ 승인 2021.04.02



가평소방서는 2일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봄철 농작물 소각 등으로 인한 임야화재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4월부터 5월 말까지 가평군 각 읍, 면 지역의 화재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봄철 화재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최근 10년간(2010~2020년) 발생한 가평군 내 임야화재 223건 중 65%(146건)가 봄철에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별로 살펴보면 농작물 및 폐기물 소각이 74%(165건)로 대부분 차지했다.

이에 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봄철 화재 안전지킴이는 지역 특색 및 지리적 여건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해 농작물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 순찰활동 및 홍보활동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.

구본현 서장은 "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작은 불씨도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"며 "의용소방대원의 예방활동으로 대형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전했다.

가평=엄건섭 기자 gsuim@kihoilbo.co.kr



엄건섭 기자 gsuim@kihoilbo.co.kr

저작권자 © 기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